

삼성, 소니와 LCD패널 합작 종료

2004년 자본금 3조3000억원으로 출범 ... LCD 수요 급감으로 적자

삼성전자가 7년여만에 일본 소니(Sony)와 LCD(Liquid Crystal Display) 패널 합작사업을 철수한다.

삼성전자는 12월26일 이사회를 열어 소니와 합작해 설립한 패널 생산기업인 S-LCD를 정리하기로 의결했으며, 소니가 보유한 S-LCD 지분 3억8999만여주(1조6500억원 상당)를 전량 매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S-LCD는 2004년 4월 삼성전자와 소니가 TV용 대형 LCD패널의 시장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합작 설립했으며, 자본금은 3조3000억원으로 삼성전자가 지분 50%+1주, 소니가 지분 50%-1주를 보유했다.

S-LCD는 2005년 세계 최초로 7세대(1870×2200mm) 패널에 이어 2007년 8세대(2160×2460mm) 패널도 세계 최초로 양산하면서 LCD TV 세계시장을 장악했으나, 최근 LCD TV 수요가 급감하면서 소니 TV사업부가 7분기 연속 적자에 누적 손실액이 60억달러를 넘어섰고 삼성전자도 LCD패널 사업부가 2010년 하반기 이후 적자로 전환됐다.

삼성전자는 S-LCD 양산라인을 기존 TV용 패널에서 중소형 패널까지 다변화하는 한편, 소니와는 대형 패널과 중소형 패널을 일정기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해 협력관계를 지속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12/26>